

육체적 시선의 임상건축학 : 자기 동일성과 차이

The Clinical Architecture of Bodily Gaze : Self-Identification and Difference

대담자 / 조권섭(현실비평연구소 대표, 건축비평가)

설계자 / 이종상(토펙(엔) 건축사사무소)

Cho Kwon-Sup & Lee Jong-Sang

일 시 / 1997. 12. 19(금) 오후 2시

장 소 / 토펙(엔) 건축사사무소



대담광경(좌 : 조권섭, 우 : 이종상)

다음과 같이 풀이하려 한다.

어떤 정신적 대상, 즉 어떤 의미심장한 대상은 대상 자체만의 표현을 넘어서서 정신적이고 좀 더 보편적인 것들의 표현이고 노출이기 때문에 의미심장해지는 것이고 이 대상 속에서 다소간에 완벽한 상징을 발견한 전체 감정세계의 표현이고 노출이기 때문에 의미심장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표현과 노출의 정도에 따라 의미심장함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조권섭 _____ 생활의 변화에 따라 육아의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밝게 자라난 어린이가 사회를 바르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어린이 시설'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가 신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설계의 주된 역할이겠고 잘 지어진 어린이집은 아이들 뿐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도, 아이들의 부모도 모두 신나는 일이지요.

유치원이란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회적 공간이며 놀이를 통해서 상상력을 키우고 인성의 기본틀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유치원 건물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건물색이 흰색인 이유 또한 이와 무슨 연관이? 아무튼 이러한 중요성으로 미뤄볼 때 무엇보다도 건축주인 원장의 역할이나 성격은 거의 절대적일 만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만나 본 건축주는 매우 화사한 분으로 원래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고 유아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갖는 분이셨습니다. 설계자가 본 건축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건물색을 흰색으로 쓰신 것은 어느 분의 생각이 크게 작용했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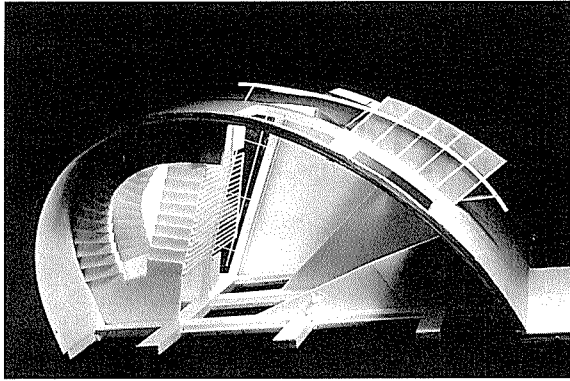
이종상 _____ 잘 보셨습니다. 건축주는 모성 본능이 무척 강한 분입니다. 그러한 건축주의 성향이 저의 작업의 시작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건물색이 흰색인 이유는 주변의 어두운 벽돌 색과의 대비효과를 의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건물 옥상 놀이터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철망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그 철망을 흰색으로 칠하면 흰색의 망사같은 느낌을 줄 것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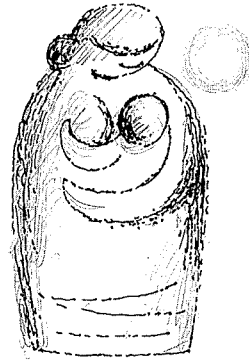
조권섭 _____ 어린이시설은 입지의 선정에서부터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대로변에 위치하지 않으면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한 골목에 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기본적인 입지조건으로는 아동의 거주지역과 가까우면서 안전한 통학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이용이 편리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유치원이 놓여 있는 대지상황을 보자면 8m와 6m 도로의 교차점으로 주변에는 다가구 주택들과 단층창고 건물들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불록담장이 2m높이로 시야를 가리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취약점으로는 대지 후면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다는 점과 모서리 대지가 갖는 특징 등이 이번 프로젝트의 매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처음 대지를 보고 받으신 느낌은 어떠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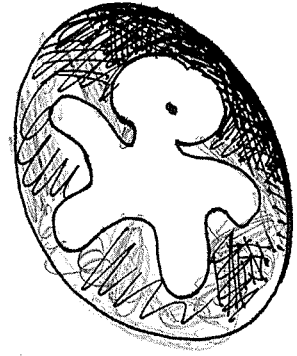
이종상 _____ 현장을 처음 보러 갔을 때 우연히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사십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을 만났습니다. 자기 어렸을 땐 이 부근이 논이었고 대지에는 웅덩이가



계단실과 Void부분을 쳐다본 모형



건축주를 모델로 한 판화 밑그림



모태속의 아이

있어서 물고기를 잡았던 기억이 난다고 하더군요.

서울, 아니 우리나라 모든 도시들의 서민들이 사는 주택가에서 만나는 풍경이지만 골목길들은 자동차들로 꽉 차 있고 대지에 비해 너무 크게 지어진 3층 높이의 다가구 주택들이 만들어내는 모습은 삭막하다는 표현보다는 허망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 시대 우리들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유치원부지를 초등학교 옆에 잡은 것은 건축주의 안목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집을 짓고 난 후 실제로 아이들에게 부족한 옥외놀이교육은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조권섭 _____ 2, 3년 전으로 기억합니다만 언젠가 선생님이 건물 구경 가져다 갔을 때, 처음으로 이 유치원을 둘러보고 생맥주 한잔씩을 기울이면서 감상을 물으셨을 때 제가 '임신한 여자의 평면인데요.' 라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도 참으로 각별한 인연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호프집에서 임신한 여자를 그린 몇 장의 스케치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때 참 여러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케치가 보여준 이 육체들은 뭔가 영향을 미치는 공간과 이것이 영향을 주는 공간 사이에 놓인 행동의 중추처럼 보였습니다. 수용된 인상이 수행된 운동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현명하게 길을 선택하는 장소를 찾고 있는 것 같았고 작가의 직관 속에서 형성되는 출발선을 말해주는 단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요. 글썄, 제가 보기에도 그림들은 생성의 연속성 가운데 있는 현재라는 순간의 청사진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봤던 '동그라미 유치

원'이라는 건축의 공간적인 세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그 흐름을 느끼도록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지에서 설계의 실마리를 찾았던 것과 여러 장의 스케치는 일정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종상 _____ 건축의 메타포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 그림들은 모태공간의 직설적 표현이었고, 저는 설계작업을 할 때 그런 작업들을 가끔 하지요.

명동성당 설계경기때 설계설명서에서다 팔을 벌리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인용했더니 심사위원들이 많은 오해를 하더군요.

건축은 그림과 직접적 상관관계는 없지만 이차원적인 그림에서 촉발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의 경우는 그림들이 건물의 랜드마크가 된 거대한 타원통 속 공간이 갖는 촉각적 요소의 탐구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권섭 _____ 온전한 어린이집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공간확보가 있어야 합니다.

보사부 아동복지법이나 영유아보육법 그리고 행동과학연구소 등이 연구하여 제시한 데이터를 보면 유아는 1인당 1.98㎡, 영아는 1인당 2.64㎡ 이상으로 하여 각실은 규모에 따라 조정하도록 되어있더군요. 하지만 현행 기준면적은 적정한 소요면적도 아니고 최소 확보면적이므로 기준면적 이상으로 하여 실정에 맞는 적정면적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적 요건에 맞는 최소한의 공간으로는 어린이에게 필요한 양질의 공간제공이 어렵기 때문이지요.

이번 동그라미 유치원의 경우, 120평 규모의

땅에 120명 이상의 아동들을 위한 대지로는 그 면적이 턱도없이 부족했으리라 판단됩니다. 더구나 주차장 면적을 빼고나면 더욱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해 수직으로 각실을 배치한 것은 아닙니까? 물론, 이에 대해서 건축가 스스로가 '상자 깨뜨리기와 공간의 숨통퉁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시설의 일반적인 기능분석으로는 교사실이나 양호실을 비롯한 관리부분과 식당, 화장실 등 서비스 부분, 그리고 놀이실과 교육실로 대변되는 교육부분까지 3가지로 크게 나누는 것이 보통이고 기능적 공간을 위한 주안점으로 각 부분간의 동선은 가능한 짧게 하며 교육시설은 가능한 복도나 계단을 피하고 서비스부분과 관리부분은 인접하여 배치하더군요. 물론 주현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동시에 신발을 갈아 신고 부모는 어린이를 맡기고 잠시 대기 가능하도록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지침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요공간의 특성 및 면적 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상 _____ 턱없이 부족한 옥외놀이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붕위에 공중놀이터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자 깨뜨리기로 지붕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 3층 특별교실을 건물 전면방향에 배부른 모양으로 확대하거나 1층 유아교실의 벽체를 수평으로 이동시킨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말한 것입니다. 소규모 건축에서 공간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목적공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공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그라미 유치원에서는 이러한 곳이 동그란 타원속에 붙어있는 계단과 그 옆의 뚫린 공간입니다. 이 뚫린 공간이 물리적으로는 건물의 환기통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간의 숨통퉁우기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집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군요. 저는 건물을 설계할 때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따져 봅니다. 집의 주인인 아이들의 방을 빛과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자리잡고 나머지 시설들은 서비스 공간으로 부차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시설이나 공공건물에서 다수의 이용자보다 소수의 사용자가 더 좋은 공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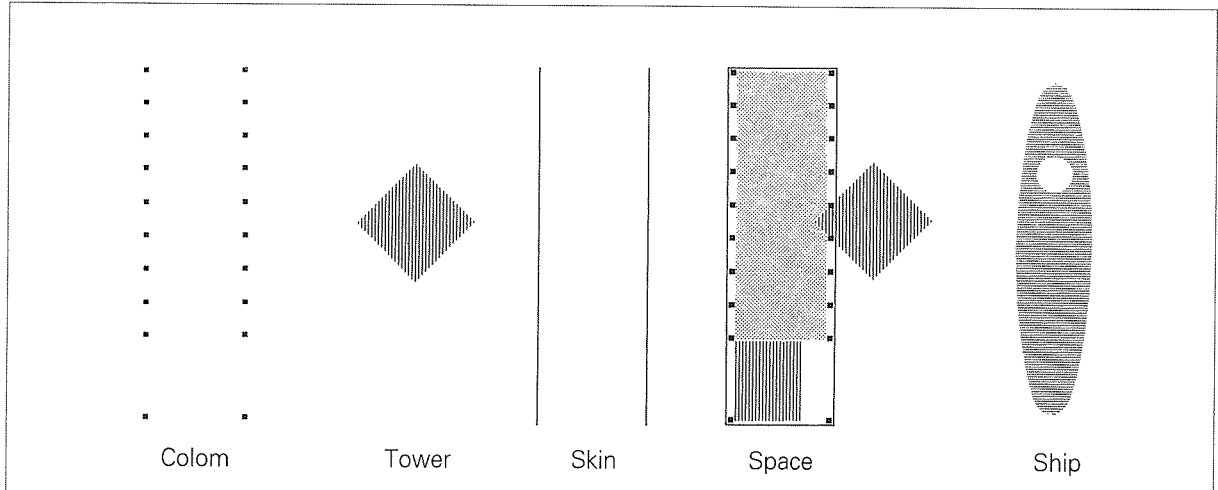
조권섭 _____ 건축가 본인이 슬회한 바 있던 얘기처럼 부드러운 빛이 내려오는 무척 촉각적인 느낌을 주는 타원통의 벽면을 따라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조잘대며 계단을 오르고, 계단 옆에 뚫려 있는 공간에는 오브제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조금은 힘이 들겠지만 계단 끝까지 오르면 파란 하늘과 관악산이 가까이 보이는 공중놀이터에 이르게 됩니다. 점심때는

미로와 같이 휘어진 계단을 내려가 밥을 먹고 뛰놀 수 있는 넓은 식당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움직임을 1층 현관 옆에 안내 카운터에 앉아 있는 관리인 할아버지가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상은 처음 엄마 손을 잡고 이 집을 구경은 아이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움과 호기심을 주어야 한다는 건축가 자신의 설계목표를 보여주는 이 건물의 랜드마크입니다. 이 집에서 건축적으로 가장 중요한 계단 옆의 뚫린 공간은 각실의 친구들을 건너다 볼 수 있는 매개공간으로 계단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수록 1층의 사각형 축창이나 2층의 세모창 그리고 3층의 원형축창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는 특정화되어 갑니다. 저는 이것을 지향시선에 따라서 '신체가 방위지어지는 체계' 속에서 지향적 대상에 대해 수행하는 지각양상의 운동감각(Kinesthese)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향시선에 따라서 지향적 대상의 이면저면을 굴리면서 관찰하는 지각양상이나 혹은 신체의 방위지어짐의 체계의 이곳저곳을 훑아다니면서 관찰하는 지각양상이지요. 이는 아동들에게 신체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경험의 바탕으로써 육체를 매개한 공간의 운동장을 만든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물론 부가적인 효과로는 천창을 통한 통풍 효과로 인하여 여름에는 시원한 수직 공간량을 확보하게 되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효과로 인하여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다고 교사들이 입을 모으더군요.

그리고 이곳에서의 커리큘럼은 타 유치원과 달리 동작교육 중심이었는데 '계단밟기'라는 프로그램이 특이하게 있었습니다. 아마, 건물 때문에 생긴 프로그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듯 계단을 통해 양쪽의 교육실을 드나들며 위, 아래의 각실을 건너다 볼 수 있고 또한 그 역도 가능합니다. 이는 통념적으로 교육실 간의 연결동선에 계단을 두지 않는 보통의 유치원과 다른 사뭇 다른 조건이죠. 물론 이것은 앞서 논의된 바 있지만 필요공간 확보라는 현실적 문제를 푸는데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단순하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의 풍경을 보러 한 번쯤은 그 유치원에 들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사된 방법은 한마디로 '분리병치(Separation)'로 설명 될 수 있습니다.

한사람이 때로는 계단과 일정 교육실에서, 때로는 그 역으로 관계하는 이같은 분리병치는 이렇듯 이러한 관계망으로 인해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고 이를 지켜보는 시선이 등장하곤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은 점점 더 이러한 재미를 깨닫는 것이고 이는 다른 유치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겠죠. 이렇듯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적 공간을 필요공간 확보라는 현실적 문제속에서 결국 발견해냈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말죽거리 빌딩 개념도

다. 저는 여기에서 보여주는 현상들에 대해 이것을 '입상공간적 시선'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또 분리병치에서 중요한 것은 '리듬(Sense)'이라고 보는데 제가 말하는 리듬이란 일정공간들이 연출하는 장면들을 운율적으로 배열하는 의미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 보다는 단위 공간내에서의 '시간의 압박'으로 구성되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리듬'이아말로 건축 형식을 빚는 결정적인 개념이라고 확신합니다. 보편적으로 건축에 있어 사람들이 가정하듯이 Scene이 결정적 요소가 아니고 바로 리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이 시설의 피상적인 기능분석으로 관리부분과 서비스부분, 그리고 교육부분 3가지로 공간 다이어그램을 논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하물며 이러한 3가지 기능의 통합교육 공간을 평면상의 각실명에 대유회실 일명, 대근육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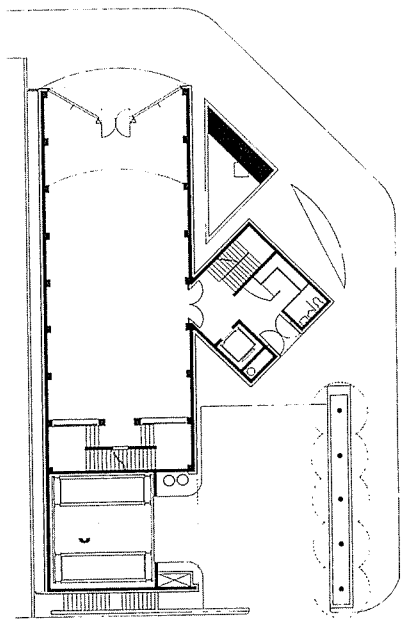
조권섭 _____ 좋은 어린이집의 또다른 요건은 어린이 위주의 공간구성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간구성이아말로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요. 아무리 기능이 뛰어난 설계라고 해도 사용자와의 스케일이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해집니다. 창문의 높이, 계단의 높이와 폭, 가구의 치수, 문의 위치 등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치밀하게 계산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좋은 어린이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가구의 크기 뿐만 아니라 색채와 재질, 용도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외관이나 눈요기의 시설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편안함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

다고 봅니다.

내부마감으로 바닥에는 목재 플로링을 했고 벽에는 몰탈 위 아크릴 페인트를 했구요. 교실의 색채 또한 총마다 파스텔톤으로 달리했더군요. 근대건축에서 가구는 보다 높은 단계에서 막연하게 의도되었던 공간의 분절이, 가구라는 우리 신변의 그 어떤 기능과 결부된 구체적인 것의 배열을 통해 명확해지고 세세하게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들면 주위 벽을 따라 놓인 창 밑 수납장소의 방향이 방의 수평방향으로 안정된 비례를 연출하는 장치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번 계획의 실마리가 되었다던 대지 모서리의 가각부분에서 유추한 타원으로부터 대지 후면에 치우친 기다란 상자와의 겹침으로 하여 공간상호간의 겹침과 상호침투가 일어나도록 만들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시각적으로는 각층 오른쪽의 실배치 상에서 타원형의 일정부위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1층 실내 놀이터에서는 2개의 기둥으로, 2층의 교실에서는 1개의 기둥으로, 3층에서는 둥근벽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각층에서 타원이 만드는 곡선은 눈에 직접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폐쇄하여 장소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흐름을 생기게 하여 자유로운 움직임을 유도하고 있는 듯합니다. 폐쇄된 볼륨을 육면체 안으로 밀어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볼륨운동이 상충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대건축에서 구획된 각실들이 건축의 본질이라는 사고방식은 이미 파기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이 공간을 분절하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것은 아닙니다. 외관상 경질되어 보이는 미스의 건축에서조차도 바닥, 기둥, 벽, 천장의 배열에 있



말죽거리빌딩 1층 평면도

어서 축이나 대칭성을 통해 많은 분절의 가능성을 잃어 낼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 층에 배분된 두 개의 교실을 어떻게 하여 개성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는지 이에 대해 가구체계와 연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종상 두 개의 교실은 가운데 있는 화장실과 아이들이 숨바꼭질같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두 층으로 나눈 작은 공간을 경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실이란 아이들의 놀이터이며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모여사는 지혜를 익히는 장소이기에 2개의 교실이 똑같은 박스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깊게 보셨겠지만 이 집의 창문은 대부분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다 창문틀의 깊이를 이용해 장난감들을 얹어 놓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유치원에 있어서 가구체계는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영역구분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하지 못했고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만을 조언했을 뿐입니다.

조권섭 유치원하면 일명 '백설공주' 스타일로 동화 등에서 나오는 성의 형태를 본따 뾰족탑이 많은 외관으로 만들고들 있더군요. '동일시'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자기보다 연령이 낮은 아이들 앞에서 5세의 아이는 항상 자기가 어머니로부터 듣고 있던 말에 액센트까지 판에 박은 듯 닮고, 노

래를 좋아하는 소녀는 모습 뿐 아니라 표정까지 텔레비전의 가수를 닮아 가는 그런 현상 말입니다. 이와 같이 유아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의 긴 생육과정에서 동화나 영화의 주인공 등에 대한 동일시의 심리기제(Mechanism)를 읽을 수 있습니다. 동일시 현상에서 나타나는 단계는 아직 비현실적이고 유희적이며 일시적이죠. 어쩌면 '백설공주' 식의 유치원들은 우리들의 아이들을 우리들의 아이가 아닌 아이로 만들려고 혈안이 된 사회구조의 한 단면을 반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사회는 '동일시' 라는 하나의 질병을 '유치원' 이라는 용도로 '공간화' 하여 '배치'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유치원은 두 매스의 관입으로 변화된 외형을 부여주고 있으며 용도가 어린이시설이기도 하고 해서인지 이번 건물의 입면을 형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로는 원과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멀리서 이같은 도형을 보고 등원하도록 마치 길 안내를 하는 것 같아 이런 것이 바로 '눈높이 설계'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건축가는 형태의 배열에 의해 질서를 실현한다고 봅니다. 또한 형태에 의해 우리들의 감각에 강력히 호소하기도 하지요. 동그라미 유치원이 형태와 입면에서 본래의 기능을 충족시키는데 성공했다고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입면구성은 주변 다른 유치원의 화려한 '백설공주' 식의 입면이나 색채 내지는 장식과는 사뭇 다르다는 데에서 오는 평가이기도 할텐데,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백설공주' 식의 유치원에 대해서 평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종상 이 집의 건축주께서 한때 왕자 유치원이란 이름의 유치원을 운영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양키취문화에 대한 경도는 동양인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지요. 말씀하신 백설공주 현상은 아동용 TV프로그램부터 동화책이나 아동용품 모두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동그라미 유치원에서 키취적 요소가 적게 보이는 것은 설계자에 대한 건축주의 신뢰감 때문이라고 해 두지요.

조권섭 건축가는 설계의뢰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문제점과 접하게 됩니다. 자신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작품을 만들려고 했었던가를 의심할 정도로 거의 해결하기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문제들과 때때로 만날 수도 있지요. 계획과정상에서 돌출된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또한 다음번 유치원 프로젝트가 생긴다면 풀어야 할 앞 전의 못다푼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번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배운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니다. 설계에서 시공 감리까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으나 어린 이집 개원 이후에 다시 둘러보니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이종상 솔직히 말씀드려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넓지 않은 외부 놀이공간의 마무리를 치밀하게 처리하지 못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놀이기구와 가구들을 손대지 못한 점입니다. 언젠가 건축주와 의견을 나눈 적도 있는데 기회가 있으면 창의력있는 유아교육 전문가와 같이 이 집의 놀이기구와 가구들을 직접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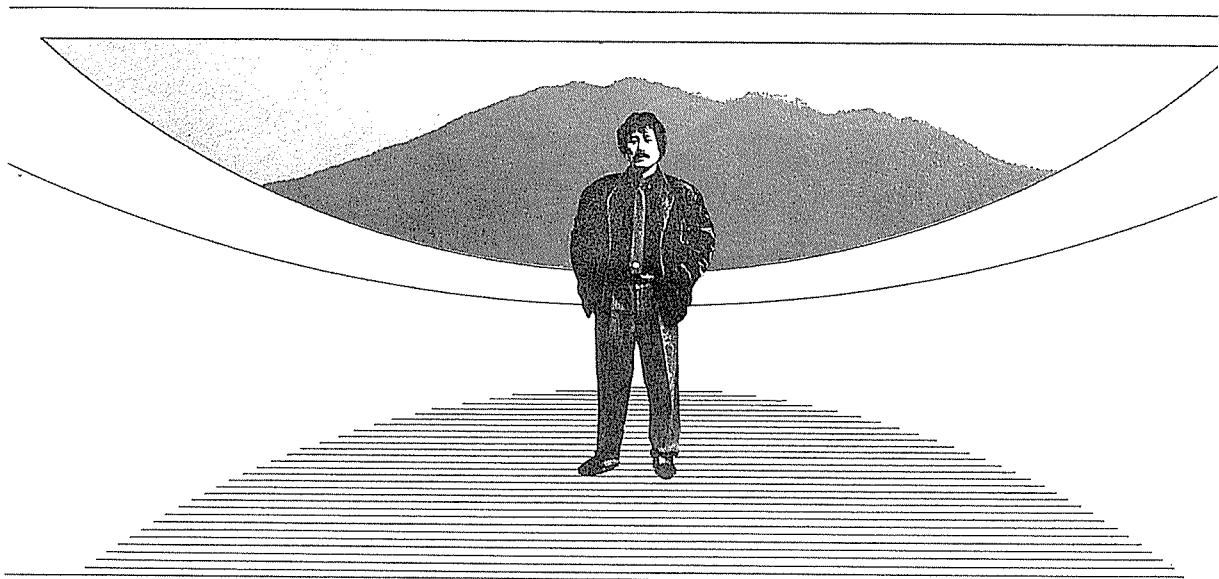
조권섭 어린이에게 좋은 공간이란 과연 어떠한 공간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어린이집이란 어린이가 즐겁고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을 창조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즐겁고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을 설계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턱없이 부족한 주변의 어린이시설들. 어린이집은 단순히 아이들을 수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바탕을 형성하는 제2의 가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양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의 질적인 향상은 더욱 더 중요한 일입니다. 어린이집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좋은 어린이집의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보통들

그렇다고들 합니다만 저에게도 유치원을 3년간이나 다니고 있는 꼬마가 있고 해서 이러한 생각들로 분주할 때 동그라미 유치원을 구경하게 된 것은 적어도 저에게는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임상의학자들은 질병을 볼 때 증상을 알파벳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증상들은 그것 자체만으로는 알파벳 순서대로 공간을 배열하는 구조로 건축요소들을 펼쳐 놓고 있습니다. 이번 유치원에서 보여주는 앞서 논의한 바 있는 태도와 현상들을 '임상공간적 시선(Regard)' 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시각이란 결코 변하지 않는 순수 형태를 현상케 하여 대지의 콘텍스트와 무관하게 동일시 현상으로 빠져드는 자기기만의 논리 구조체로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감수성을 가진 시선이며, 모든 움직임이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시각입니다. '건축어휘' 운운하며 그것을 독재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여 대상의 깊이를 수렴하고 있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렇듯 현실에 비탕하고 이를 반영하여 특수해로 풀어 보려는 '임상건축', 그것은 새로운 공간, 즉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적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유치원 원장님을 두번째 만났을 때 "다른 유치원들에서는 영어교육이다, 한글교육이다 하는 일명 '학습지 공부' 를 주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유치원은 학습지 공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다들 건물이 너무 좋다면서 이러한 저희 유치원의 교육의지에 동참하시는 이유가 바로 건물이에요." 하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럼, 이만 수고하셨습니다.



말죽거리빌딩의 옥상